

2022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기
억
하
고
싶
은
길



제주다크투어

(사)제주다크투어는
여행을 통해 오감으로 역사를 느끼고
다시는 제주4·3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4·3 평화기행을 비롯해 사라져 가는 유적지 기록 및 구술 채록,
4·3 교육활동 및 다양한 국내외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사말	4
제주다크투어의 가치와 2022년	5
2022 주요 활동과 성과	6
2022 분야별 활동	8
2022 재정보고	16
2022 후원회원	17
제주다크투어를 가까이 하는 방법	18



제주다크투어의 다섯 번째 활동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월간 일일 기행 재개, 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2기를 통한 시민참여형 활동, 『4·3은 말한다』 총 6권 강독 모임, 도 외 4·3유적지 조사 및 과거사 단체 교류사업, 봉개동 4·3유적지 조사사업, 4·3 재심재판 방청·기록 등 제주4·3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박진경 추도비 감옥설치 활동, UN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등 연대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조금씩 회복하면서 4·3 다크투어를 찾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4·3을 기억할 기회가 줄어든 반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노력으로 기억의 공백을 최대한 작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4·3을 비롯한 과거사 청산의 노력이 뒷걸음질 치려는 행태가 늘고 있습니다. 여당 최고위원의 4·3에 대한 진실 왜곡·편향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칭 서북청년회를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이 4·3평화공원에서 집회를 신청하고, 추모행사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가올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제주다크투어는 4·3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기존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4·3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려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늘 함께해주십시오.

2023. 4.
양성주 제주다크투어 대표



4·3과 제주 역사를 기억합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4·3기행 프로그램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정상화했습니다. 2020년 3월 중단되었던 '월간 일일기행'을 2022년 6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덕구 #예비검속 #성산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기행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야간투어, 인권, 도시재생 등 다양한 상황과 주제에 맞춘 다크투어 프로그램 기획도 시도했습니다.

4·3 유적지를 비롯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2021년 전부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일반재판 특별재심과 군사재판 직권재심의 재판을 방청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3기간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수형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재심재판을 통해 무죄선고를 앞두고 그간 겪었던 가슴아픈 사연들과 소감을 오마이뉴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3 평화공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방치된 봉개동 4·3유적지를 조사했습니다. 회천, 용강, 봉개 지역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역사적 사실도 확인하고 새로운 4·3유적지 발굴도 진행했습니다. 마을의 의미있는 역사유적을 포함시켜 봉개동 4·3유적지 투어 프로그램을 제주도에 제안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4·3유적지 조사, 영남지역 4·3유적지 탐방 등을 참여 및 진행했습니다.

제주의 평화와 생태를 지킵니다

제주다크투어를 찾는 분들께 텀블러 사용과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늘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가 겪고 있는 평화 및 생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하수 처리, 난개발, 제주해군기지, 제2공항, 영리병원 등 제주의 평화와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문제에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늘 중요합니다.

국경을 넘어 평화를 위한 목소리에 연대합니다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맞아 국내 과거사 단체들과 연대하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제주해군기지를 중심으로 국가간 군사훈련 반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촉구,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탄압 비판 등 힘을 보태어 연대하고 있습니다.

2022 주요 활동과 성과

2022년 제주다크투어가 진행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 3.10 [공동] 박진경 추도비 '역사의 감옥' 설치
- 3.29 [공동] 제주도 「혐오표현방지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 3.29 [논평] 제주4·3 직권 재심 사건 재판 무죄 선고 환영
- 4.26~9.28 「4·3은 말한다」 감독 모임

- 5.13 [논평] 제주4·3의 역사, 관광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 5.24~12.27 봉개동 4·3유적지 조사사업
- 5.26 [성명] 제주4·3의 학살자 박진경 감싸고 도는 보훈청을 규탄한다!
- 5.27~7.13 제주도 7개 중학교 진로체험 강의

- 7.12 [논평] 검찰은 특별재심을 4·3희생자 검증 도구로 활용 말아야
- 7.27 제주 4·3 국제네트워크 발족
- 7.31 월간 일일기행 진행 '제주 예비검속 다크투어'
- 8.25 전국 YMCA 실무자대회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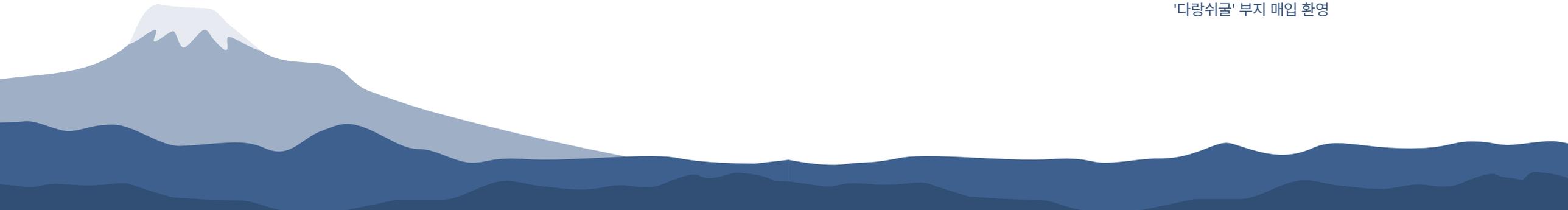
- 11.4~11.6 제주4·3 도외유적지 탐방 및 과거사 단체 교류사업 진행
- 11.24 [의견서] 제주4·3 역사 부정하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반대
- 12.8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4·3을 부정해 온 김태훈 4·3 중앙위원 즉각 해임하라



- 1.12 송령이글 희생자 위령제 봉행
- 1.13 갈마루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성장여행 기부금 전달
- 2.3 상근활동가 2명 신규채용

- 6.7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맞이 인권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발표
- 6.12 월간 일일기행 진행 '이덕구의 흔적을 따라 걷다'
- 6.13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면담
- 6.25 대전 골령골 유해발굴 자원봉사 참여

- 9.3 일본 NPA 초청 온라인 특강
- 9.7~12.31 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사업 진행
- 9.22 [논평] 제주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환영
- 10.12 다큐멘터리 영화 '태안' 상영회
- 10.28 [논평] 제주도의 제주4·3 유적지 '다량취굴' 부지 매입 환영



2022 제주다크투어 분야별 활동

평화기행



2022년 국내외 총 44여 개 단체(1,157명)가 제주다크투어 4·3 평화기행에 참여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제주다크투어의 평화기행 예약 취소가 늘어났고 시민들의 참여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방역지침 완화로 다크투어 신청단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6월부터 월간 일일기행을 재개했습니다.

2023년에도 도보투어, 야간투어, 이동약자를 위한 투어, 인권/젠더/생태 연계 투어 등 다양한 기행 프로그램 개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다크투어의 기행 프로그램은 (주)평화여행자, (사)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함께 진행합니다.



**봉개동 4·3유적지 실태조사 및
자원활용 방안 발간에 참여했습니다**

제주다크투어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지원하는 '봉개동 4·3유적지 실태조사 및 자원활용 방안'에 참여했습니다. 문헌자료 조사, 24곳 4·3유적지 (현장)조사, 관련 증언자 인터뷰 등을 진행했고 봉개동 내 3개 지역의 4·3유적지 길코스(안)을 마련해 제주도에 제안했습니다.

조사결과 봉개동 내 4·3유적지 중에 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사유지로, 4·3 당시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봉개지역 4·3유적지 안내판 설치, 4·3길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일부 유적지에 안내판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4·3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재판 방청 및 후기 작성

2021년 '4·3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활성화된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일반재판 특별재심 재판이 매월 2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방청해 변호인과 검찰 측의 내용, 수형인 희생자 유족의 발언을 기록하고 그 후기를 홈페이지와 오마이뉴스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7월에 진행된 일반재판 수형인의 특별재심 재판에서 이미 4·3희생자로 인정받은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사상검증 취지로 추가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제주다크투어를 비롯한 4·3 관련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이러한 월권적 행태를 규탄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의 사업 중에 도외 4·3유적지 조사(몽양기념관, 승리굴, 문상길 중위 생가, 대전 현충원, 조병옥 박사 생가 등), 박진경 추도비 '역사의 감옥' 설치 활동, 대전 골령굴 유해발굴 자원봉사, 도 외 4·3유적지 탐방 및 과거사단체 네트워크 강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주도 및 참여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제주4·3 유적지를 알리자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2기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제 안내판이 부실하거나 부재한 4·3유적지 15곳을 선정하여 시민이 직접 안내판을 제작하고 알리는 시민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2기'는 유적지 답사를 통한 관리 및 보존상태를 점검하고 임시 안내판과 QR코드 리본을 제작 및 설치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4·3은 말한다' 강독모임을 진행했습니다

『4·3은 말한다』는 총 5권까지 출판되었지만 실제로는 6권까지 존재하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초석이 된 책입니다. 제주4·3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과거사이자 현대사인 제주4·3을 바라보는 관점의 힘을 키우기 위해 비출판된 6권까지 강독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3은 말한다』에서 기록한 제주4·3유적지 중 다량취굴, 원도심 유적지의 현장답사, 『4·3은 말한다』 공저자인 김종민 자문위원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현장감 있는 제주4·3의 역사를 알아가는 기회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평화를 위한 제주다크투어 연대의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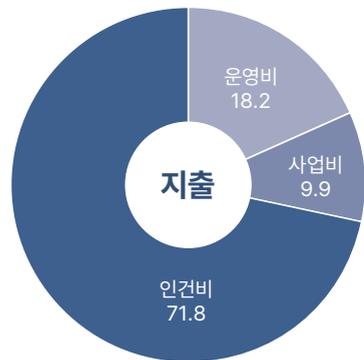
제주다크투어는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연대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주4·3 국제네트워크 발족, 제주 혐오차별금지조례 제정 촉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촉구 등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촉구, 미얀마 군부의 시민학살 규탄,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환태평양훈련 림팩 철회 촉구 등 국제적 국가폭력 이슈에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2022 재정보고

제주다크투어는 후원회원님의 정기후원금(회비)와 비정기후원금을 근간으로 재정을 운영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제주다크투어는 2018년부터 3년간 아름다운재단의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을 받아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2021년부터 자립을 시작한 제주다크투어가 곳곳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2022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제주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후원금 후원회원

강갑선, 강경숙, 강남윤, 강문희, 강버들, 강병옥, 강성실, 강성호, 강송희, 강순구, 강윤희, 강혜정, 강호진, 고권일, 고명희, 고병수, 고상근, 고은영, 고제량, 고주현, 고지선, 고효양, 권오덕, 권장희, 권진덕, 권행백-박 순, 권현규, 권혁일, 김갑사, 김경미, 김경아, 김경애, 김경희, 김나경, 김나솔, 김남훈, 김남희, 김덕중, 김동현, 김동환, 김두림, 김명완, 김미선, 김민선, 김병기, 김병우, 김복자, 김상길, 김성규, 김성례, 김세진, 김승연, 김승환, 김연주, 김영지, 김영환, 김 안, 김우용, 김유정, 김유진, 김윤정, 김은경, 김은주, 김은희A, 김은희B, 김은희C, 김익조, 김익태, 김인숙, 김잔디, 김재훈, 김정순, 김종익, 김지민, 김지형, 김지혜, 김진, 김진극, 김진영, 김찬휘, 김태일, 김태환, 김평선, 김한솔, 김현미, 김형완, 김효철, 김휘연, 김희순, 김희철, 노기카오리, 노아실, 도백호, 류다솔, 류민희, 류승연, 류영재, 명혜정, 문소연, 문유진, 문정순, 민경숙, 박건도, 박나리, 박대현, 박래군, 박문석, 박병삼, 박병우, 박상용, 박석진, 박수진, 박외순, 박유라, 박윤희, 박정미, 박진, 박진석, 박찬식, 박희경, 박희연, 반영관, 방학진, 백가윤, 백영경, 변경재, 부성진, (사)동백고장, 서인엽, 서주형, 서채완, 석영근, 성기남, 성연석, 성영희, 소정미, 송영훈, 송은옥, 송창익, 신기철, 신동원, 신현재, 신혜영, 심재환, 심진규, 안은정, 안하나, 양계승, 양동규, 양성주, 양성철, 양여옥, 양연준, 양윤경, 양인심, 양정미, 양정심, 양해준, 양훈석, 양희선, 염창근, 오동원, 오성희, 오은주, 오현정, 오형윤, 유옥규, 유혜림, 윤명희, 윤상훈, 윤상희, 윤숙희, 윤영훈, 윤지선, 윤진영, 윤치경, 이기찬, 이길훈, 이도권, 이동현, 이동화, 이미현, 이민정, 이보라, 이사랑, 이상돈, 이상연, 이상현, 이상희, 이선미, 이성권, 이송희, 이순채, 이 슬, 이승건, 이승민, 이용석, 이원문, 이윤성, 이은경, 이은진, 이 일, 이재유, 이정섭, 이종우, 이주엽, 이태호, 이하나, 이현주, 임무성, 임아름, 임인자, 장기훈, 장길완, 장동엽, 장동화, 장명우, 장민성, 장선미, 장예정, 장유진, 장흥배, 전명숙, 전명훈, 전수연, 전영미, 전진수, 정경희, 정규정, 정기중, 정다영, 정다운, 정다인, 정민규, 정병길, 정수민, 정신영, 정예은, 정유리, 정지안, 조미진, 조민수, 조선경, 조수진, 조양일, 조연서, 조정아, 조정희, 좌광일, 주동규, 주세웅, 주수정, 주태영, 주현우, 지 오, 진미영, 진영옥, 차옥준, 최리현, 최상돈, 최선미, 최성혁, 최연심, 최영옥, 최원진, 최윤정, 최재혁, 최정진, 최희태, 하타나카아이, 한수연, 한신실, 현기영, 현기욱, 현대숙, 현준호, 현혜경, 홍성수, 홍성우, 홍영철, 홍일심, 황수영, 황숙자, 황 준, 황진상

비정기후원금 후원회원

갈마루지역아동센터, 강호진, 고길천, 김남훈, 김미지, 김선화, 김성채, 김잔디, 문덕귀, 소설기버 꼬닥꼬닥, 신동원, 양동규, 양성주, 오영복, 이경은, 이지선, 이지현, (주)평화여행자, 투어존, 황서영, 황정혜

제주다크투어를 가까이 하는 방법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힘을 저희는 믿습니다.

제주다크투어와 함께 제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가는 힘이 되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매달 일정 금액을 CMS 자동이체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접속 > 정기후원 신청 > 기본정보 입력 >

출금정보 입력 > 영수증 정보 입력 > 동의서 사인 > 등록

회원이 늘어나면 4·3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힘이 커집니다.

주변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가입을 권해주세요.



비정기 후원하기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255-4708-41 / 예금주 : (사)제주다크투어



물품 후원하기

제주다크투어 사업에 필요한 현물(복사용지, 도서, 문구 등)을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 중에 제주다크투어에 쓰일 것이 있습니다.

물품 후원 문의 : 사무국 064-805-0043



SNS 친구되기

페이스북 @jejudarktour 인스타그램 @jejudarktours 유튜브 #제주다크투어 검색

SNS에서 제주다크투어의 소식을 받아 보세요.

#좋아요 #공유하기는 더 많은 분들께 제주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제주다크투어의 한 달 활동, 다크투어 유적지 소개, 행사 안내 내용을 담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제주다크투어의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구독방법 : 홈페이지 하단 > 뉴스레터 구독 정보 입력 / 제출하기



2022 제주다크투어 연간보고서

기획/편집	(사)제주다크투어
제작	(사)제주다크투어
디자인	다디잔
인쇄	세진인쇄
발행일	2023년 4월
발행인	양성주
발행처	(사)제주다크투어
주소	(631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93, 2층
전화	064 805 0043
후원계좌	농협 301-0255-4708-41 예금주 (사)제주다크투어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사)제주다크투어는 여행을 통해 오감으로 역사를 느끼고 다시는 제주4·3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4·3 유적지 기행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 기록, 4·3 강좌 개최 및 국제연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31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93, 2층

Tel. 064 805 0043 Fax. 070 8228 0043

jejudarktours@gmail.com

www.jejudarktours.org

youtube. @user-eg3dg5xq3u

facebook. @jejudarktour

instagram. @jejudarktours